



Eighth Army Public Affairs Office

Phone DSN (315) 755-8275 / Local 0503-355-8275



FOR IMMEDIATE RELEASE

Media Release: 20250926-01

SEPT 26, 2025

미 8 군, 위버 신임 주임원사 부임 및 볼머 주임원사 이임식 거행

캠프 험프리스, 대한민국 – 미 8 군은 9 월 26 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책임 이양식을 열고 로빈 볼머(Robin Bolmer) 주임원사가 제프리 위버(Jeffery Weaver) 주임원사에게 최선임 원사 직책을 이양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군과 한국군 주요 지휘관과 장병, 참모, 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미 8 군 사령관 직무대행 행크 테일러(Hank Taylor) 소장이 주관했다. 행사는 볼머 주임원사의 공로를 기리고, 한반도의 대표 전투부대인 미 8 군의 새로운 최선임 원사로 위버 주임원사를 맞이했다.

볼머 주임원사는 2023 년 8 월부터 미 8 군 주임원사로 복무하며 연합 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부서관 및 병사들의 훈련과 다국적 작전 참여를 이끌어왔다.

이임사에서 볼머 주임원사는 자신이 함께 복무한 장병들과 부서관들의 전문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미 8 군 주임원사로 한국 동맹군과 함께 복무한 것은 제 군 생활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한미동맹의 힘은 단순히 조약이나 합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병, 카투사, 한국군 전우들의 신뢰, 공동의 희생,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에서 비롯된다. 이 책임을 위버 주임원사에게 안심하고 이양하며, 그가 이 굳건한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볼머 주임원사는 다음 달부터 주한미군사령부 주임원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위버 주임원사는 이전에 주일미육군 주임원사로 복무하며 지역 내 장병들의 대비태세를 감독하고 지휘관들을 보좌했다. 그는 기준·규율·멘토십에 중점을 둔 리더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부임을 통해 그 경험을 미 8 군에 접목할 계획이다.

미 8 군, 위버 신임 주임원사 부임 및 볼머 주임원사 이임식 거행

미 육군의 4 개 경보병사단에서 팀장부터 여단 주임원사까지 모든 직책을 수행한 위버 주임원사는 자유수호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미 아프리카사령부 지역 임무, 그리고 최근 확고한 지원작전(Operation Resolute Support) 등 여러 차례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위버 주임원사는 “볼머 주임원사가 훌륭하게 이어온 전통을 이어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미 8 군의 장병, 지휘관, 그리고 임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복무하겠다. 한미동맹은 전략적 동맹을 넘어 공유된 가치와 상호 존중으로 맺어진 유대이며, 한국군 동료들과 나란히 연합 대비태세와 단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버 주임원사는 현재 미 8 군의 최선임 원사로서, 지휘관을 보좌하며 미 8 군 및 6 개 주요 예하부대의 모든 장병들의 건강, 복지, 규율, 전문성 향상을 책임지게 된다. 최상위 부사관 지도자로서, 그는 장병들의 목소리가 지휘부 최고 단계까지 반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육군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투대비태세와 작전적 탄월성에 집중하도록 이끌고 있다.

주임원사는 다국적 훈련과 연합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해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동맹을 강화한다. 또한 모든 계급의 장병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책임감, 전문성, 임무 중심의 지휘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 8 군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주한미 8 군 공보실 (usarmy.humphreys.8-army.mbx.public-affairs-office@army.mil)

-END-